

'한철 장사'였던 빙설경제, 이제 사계절 내내 활기

겨울철에만 북적이던 중국의 빙설 경제가 사계절 내내 활기를 띠며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계절 한계에 갇혀있던 빙설관광산업이 이제는 이색 스포츠와 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1년 내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구조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5 중국 빙설관광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시즌 우리나라의 빙설 레저 관광객은 약 5억 2,000만명(연인원), 관광수입은 6,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반년짜리 경기'로 불리던 빙설산업이 지금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계절 내내 빙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도

인기다. 길림시 북산 사계절(北山四季) 크로스컨트리 스키장내 '상고대 실험실'은 남부지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하 방공호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상고대 현상을 재현해 환상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산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바 스키복 원단과 스키폴 금형, 스마트 스키 장비, 기자재 검사, 케이블카와 제설기 제작 등 빙설 관련 장비산업은 15개 대분류로 세분화되었는데 길림성에만 800여개의 빙설 스포츠 및 장비 기업이 운영중이다.

현지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맞춤형 제품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빙설 경제'를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빙설 소비 바람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있다

는 평가다.

최근 몇해간 길림성은 빙설강성 건설을 추진하며 빙설스포츠, 빙설문화, 빙설관광, 빙설장비를 핵심으로 한 '4+X' 빙설산업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한랭지 빙설경제 발전을 다그쳐 '맹자원'을 '열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시아 최대 스키휴양지인 북대호 스키휴양지는 세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으며 최대 스키산체 높이차는 870미터에 이른다. 북대호스키휴양지 마케팅총괄은 "이번 눈철 휴양지 관광객은 105만명, 관광수입은 5억 7,000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5%, 32% 늘어났다."고 말했다.

장백산관광지는 '천지 눈담협, 심산(深山) 눈길 달리기, 소나무숲 눈길 걷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

백산 눈, 얼음의 기적' 계열 상품을 내놓았다. 장백산관광주식회사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왕공은 "회사는 자원 융합을 고수하고 산업 혁신을 추동하며 지역내 자원이 서로 융합되고 시너지를 내도록 하여 전 성 조단 위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빙설 시즌에 전국 스키장 인기 순위 10곳과 스키 주행거리 순위 10개 기업 가운데 길림성이 각각 3곳을 차지했다. 길림성 문화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이번 빙설 시즌에 성내 국내 관광객은 1억 7,000만명, 관광객 총소비액은 2,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21%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 신화넷

아름다운 영웅의 도시—남창



아름다운 남창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강물이 도시와 함께하는 강남의 옛 도시 남창은 서쪽으로는 서산에 기대고 북쪽으로는 매령을 바라보며 감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른다.

아름다운 경치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옛 도시 남창은 1927년 8월 1일 중국공산당의 무력투쟁의 시작과 중국 혁명군대 창건의 서막을 연 8.1(八一) 봉기로 '군기가 휘날린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강서성의 북부, 감강과 무하의 하류, 파양호의 서쪽 호수가에 위치한 남창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영광스러운 혁명전통도 보유한 영웅의 도시이다.

기원전 202년, 한고조 류방이 영음후(穎陰侯) 관영에게 남창 일대를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이듬해 관영은 오늘날 남창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키로미터 거리의 황성사 근처에 둘레 5키로미터의 성문 6개를 낸 도성을 축조했는데 당시 관성이라 불린 이 성이 바로 남창성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장강류역 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남창성은 날로 확장되었다. 동진 때인 371년~372년 현재의 태수 범녕이 대규모 성을 보수하면서 동북쪽과 서남쪽에 두개의 성문을 새로 냈다.

당나라 초반에 관성의 서북쪽에 성을 새로 축조했는데 청색의 벽돌로 성을 쌓았다. 그 뒤 685년과 809년 두번에 걸쳐 남창성을 증축해 성곽이 한나라 때의 관성에 비해 한배가 확대되고 둘레도 10키로미터로 늘었다.

오늘날의 남창성은 바로 당나라 때 축조한 이 성을 기반으로 발전, 확대되었다. 남창은 도시가 세워져서부터 줄곧 부(府)와 주(州), 성(省), 도(道)의 소재지로 인문경관이 아주 풍부하고 고건물이 즐비하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남창은 강남의 유명한 도시여서 당시 남창에는 인구가 많고 투각과 정자가 즐비하며 아담한 정원과 아늑한 절이 곳곳에 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등왕각이다.

당나라 시인들인 백거이와 두목, 북송의 문학자들인 구양수와 증공, 왕안석, 동진의 서예가 왕희지, 남송의 시인 신기질 등도 모두 등왕각에 올라 작품을 남겼다. 1,300여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등왕각은 28차례나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졌으며 현재의 건물은 1985년에 개축한 것이다. 송나라 때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등왕각은 강가에 우뚝 솟아 웅장함을 자랑한다.

남창시 남쪽에 위치한 청운보는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도관이다. 기원전 6세기 주령왕의 아들 진이 이곳에서 단약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동진 때 도교 정파가 창설되면서 321년부터 이곳은 도교 암자가 되었고 청나라 때인 166년 명태조의 제 10대 손인 주탑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청운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청운보의 주요 전각들인 관제전과 려조전, 허조전은 중심선에 한 일자로 줄지어있고 건물들은 구불구불하며 아늑한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독특한 서법과 정교한 시문으로 유명한 주탑은 특히 서예 분야에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탑이 심플한 필치로 산수의 경치를 그리는 대가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팔대산인이라고 불렀다.

남창이 '영웅의 도시'라 불리게 된 것은 1927년 8월 1일부터이다. 당시 주은래와 주덕, 하룡, 엽정, 류백송 등이 남창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8.1 남창봉기'를 지휘해 중국혁명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남창에는 또 1920년대의 많은 혁명사적지들이 보존되어 사람들에게 중국혁명의 어려우면서도 눈부신 령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8.1 남창봉기 총지휘부 사적지와 8.1 남창봉기 기념관, 하룡지휘부 사적지, 엽정지휘부 사적지, 신사군 군부 사적지 등이다.

/ 국제방송

연길 등 중소도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셜 화폐'로 부상



상해시청소년연구센터와 동승려행이 4일 공동 발표한 <2025 도시 청년 령행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18세~35세 청년층의 령행 특징과 트렌드에

서 새 일선 도시(新一线城市)를 찾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요일 '피크 시간대 회피' 령행, '고속철도 3일내 결정' 등이 청년층의 보편화된 령행 트렌드로 자리잡았으며 길림성 연길을 비롯한 일부 령행지도 이 단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입소문

을 타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셜 화폐'(社交货币)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셜 화폐'는 미국 펜실바니아대와 와튼스쿨의 마케팅학 교수 조너너 버거가 제시한 마케팅 개념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에서 자신을 공유, 교류,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정체성을 획득하는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현실의 화폐와 유사하게 소셜 화폐는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의 관심, 인정, 호감이라는 '가치'를 구매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흥미롭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독창성을 전시하며 소셜네트워크내 이미지와 지위를 향상시킨다. 신기한 사물, 핫 이슈 등 타인의 관심과 토론을 유발하는 특성을 지니며 인기 영화, 음악 등 공동 화제를 통해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동승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단편 영상 소셜 플랫폼의 지속적 영향으로 '영상 체크인'이라는 소셜 화폐 사용이 젊은 세대의 세계 연결 방식으로 정착했다. 더불어 길림성의 연길, 신강의 카스, 복건의 천주, 내몽골의 아일산, 귀주성의 진원, 운남성의 망시, 복건성의 장주 등 중소도시들이 독특한 문화와 개성화된 체형으로 젊은층의 SNS 체크인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 중앙방송

<오색아리랑>, 관광객들에게 시청각 향연 선사

연변가무단이 창작한 대형 원형가무시 <오색아리랑>이 5.1절 기간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시 <오색변강>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시작된 공연은 화려한 조명과 그림자들로 연변의 웅장한 산천을 담아낸 한쪽의 산수화를 관람객들에게 펼쳐보였다.

무용 <수영>(绣影)에서는 무용수들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감로수를 길어내는 아름다운 정경을 표현했

고 남성중앙 <장백산찬가>는 힘있는 목소리로 연변 대지의 빼어난 자연과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했으며 이어진 무용 <향음>(乡吟)은 생동감 넘치는 자태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남녀 2중창 <한하늘 아래>는 감미로운 선율로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의 우애와 협력을 전했다. <붉은 해 변강 비추네>, <초원에서 북경을 바라보며>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노래들이 흘러나오자 일치한 박수소리로 현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모든 종목들이 살아움직이는 그림같이 연변의 매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온 관광객 진녀서는 감격을 금치 못했다.

할빈에서 온 관광객 장선생 역시 "노래도 춤도 모두 감동적이었고 특히 친숙한 노래들이 연주될 때는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며 감탄했다.

이번 공연은 '오색변강', '파란 아름다운', '분홍꿈', '하얀 순결', '푸른 운지', '붉은 훈', '화려한 장편' 등 7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음향, 조명, 영상 등 다양한 무대예술 수단을 활용해 경쾌한 춤과 우아한 노래, 열정적인 선율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무대에서 선보인 배우들의 정교한 연기는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마음한뜻으로 협력하며 전진하는 따뜻한 풍경을 그려냈고 의기양양하고 진취적인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면서 새시대에 단결분투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도록 전 주민들을 고무했다.

/ 김영화기자

'연변관광교통', 관광객들에게 편리 도모



'연변관광교통'을 통해 실시간 도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

5.1절 기간 '연변관광교통' 미니프로그램은 루계로 801건의 실시간 도로 상황 정보를 발표하고 17만여건의 도착 알람을 핸드폰으로 외지 관광객들에게 전송, 2만 3,000여차례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연변관광교통' 미니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에서 관광객들은 연길시시장, 훈춘 방천 등 인기 명소의 관광 안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박씨보신탕, 원할머니보쌈 등 현지 특색 음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도로 상황 지도는 관광객들이 교통 체증을 피해 즐겁게 연변을 관광할 수 있도록 했다.

/ 본지종합

"너무 편리하다. 휴가 기간 풍경구가 인파로 북적이고 가는 길에 차가 막힐까 봐 걱정했는데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로신을 계획했더니 순탄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다."며 북경에서 온 관광객 왕씨 녀성은 감탄했다.

명소 관광 안내, 음식 추천, 실시간 도로 상황 전송, 안전 제시를 집중시킨 이 스마트 봉사 플랫폼은 과학기술로 관광객들에게 간편하면서 살뜰한 관광봉사를 구축해주어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간단한 클릭으로 연변 관광의 편리와 다채로움을 누리게 하고 있다.



남창 일각